

# 민주당,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직접 챙겨

### 김승수 시장,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선공약인 '특별법 제정' 당 차원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과 정에서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전주에 보유한 전통문화와 예술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은 그간 전주와 전북은 호남권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재원 배분, 지원 등에서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에 밀려 소외받아 왔지만, 문 대통령이 전주 시민과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문화특별시 지정 현실화에 힘을 실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주가 문화특별시로서 행정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전주만의 특별회계도 별도로 설치해 전복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채용할당제(30% 이상) 법제화를 추진하



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가 실현되면,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의 악순환을 완화시키고, 혁신도시 건설 본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대통령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 정치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주요 핵심 국가예 산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미래를 위한 단 한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발전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전주를 문화특별시 지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 전주 관련 공약사

업들이 반드시 관철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추미애 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춘진 도당위원장, 송하진 지사, 송현섭.양향자.김병관.이형석 최고위원,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이춘석 사무총장, 박완주 수석 대변인, 백해련.김현 대변인, 문미옥 비서실장, 안호영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안재용 기자

## 김광수,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사진)이 7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활동에 있어 가결 법안 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및 상임위 소위) 출석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국회예결특위 활동 등 12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과 언론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6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계수조정소위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 다방면에 걸쳐 성실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이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대변해 민생정치·생활정치·소통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문병호 "국민의당은 국민들 변화 열망 받아들여"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은 기성정치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향후 국민의당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전 최고위원은 7일 오전 11시 전북도당 회의실을 방문해 대표당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길'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열망하는 변화와 기성정치에 대한 심판을 하기에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해 19대 대선 패배에 대한 진담을 내뉘었다.

또 "국민들이 안철수를 불러낸 이유는 기성정치를 바꾸고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정치를 원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치는 기존에 관료와 재벌들이 중심이 된 정치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최고위원은 "세계적인 현상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의 흐름을 같이한다"며 "할리우는 미국 기독교와 기성 정치의 대표자고 트럼프는 미국판 안철수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미국인들의 뜻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부족과 역량부족으로 집권에 실패했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살려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핵심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진성 기자

## 김이수 "민주당 때문에 통진당 소수의견? 사실이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재판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는 보수야당 공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나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걸 알게 됐다"고 돌아세우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 강경화 후보자 "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

### "10억엔 성격 불명확...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구두로 양국의 장관이 발표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하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줬다.

강 후보자는 "합의 내용을 보면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 않고,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군사

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인권 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다. 이 부분이 있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것이 아닌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한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는 의의스럽다"며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날 위안부 배지를 달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강 후보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지에 대해 묻자 "지난주 금요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께서 반갑게 달아주셨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배지를 주신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아서 장관이 되면 할머니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관에 초대해 식사도 하고 싶다"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